

죽는다고 끝일까요? 영혼은 무엇인가요?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lord of the cre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참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인간은 또한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동물일까요? 인간은 비록 동물과 다른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과 본능만 있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참 '나'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실재하는 것은 아시죠? 그 마음은 혼('나' 라는 의식)에 담겨 있고 그 '나' 라고 하는 혼과 영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과 혼을 합쳐 영혼 혹은 혼령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다행인가요? 아니면 싫으신가요?

짧은 인생에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데 또 다시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거부한다고 모든 게 사라질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생물은 죽는 순간에 무(無)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육체가 끝나도 그 참 존재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왜 영원히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불못에 던져질 멸망할 것입니다(계 20:14). 우리가 이 우주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주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유희 불못에 영원히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요 1:12-13).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누구나 가는 곳일까요?

하늘나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 한 후,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악의 쓰레기장인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악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누구라도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숙명을 바꿀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은 이 숙명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연구나 철학, 경건으로는 그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개미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아주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도 본질을 바꿀 수 없고 짓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죄값을 사망으로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의 맹세를 번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죄를 해결하도록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죄인이던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짓값으로 인한 사망을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맹세로 정하셨고, 그 뜻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